

# 광주 장기미집행공원 시민품으로

### 일몰제 대상 24곳 실시계획 인가고시 완료... 지자체 중 처음 개발 아닌 공원 면적 90% 이상 확보... 토지보상 절차 진행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일몰제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모두 지켜냈다. 특히 아파트 건설 등 개발 위주가 아닌 공원면적을 90% 이상 확보해 시민들에게 되돌려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심의 허파이자 150만 광주 시민들의 휴식처인 도시공원들이 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 되는 상황을 막아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 중 공원면적 비율을 가장 높게 확보했다. 광주시는 특히 공원 확보면적, 사업의 지속성, 과도한 수익 환수, 사업 추진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광주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1994만㎡이며, 일몰제 대상공원은 25개소 1100만㎡로 전체 도시공원의 55%에 해당된다. 시는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에 해제한 광목공원을 제외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4

개소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해 오는 7월부터 발표되는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이 자동 실효되는 것을 막아냈다.

시는 재정공원 15개소 262만㎡ 중 66만㎡는 해제하고 나머지 195만㎡(기조성 58만㎡ 포함)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사유지 98만㎡를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중앙공원 등 9개소 10개 지구 786만㎡ 중 76만㎡(9.7%)를 비공원시설(아파트)로 조성하고 710만㎡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공원시설 면적(공원 내 아파트 건립 면적)을 9.7%로 한정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평균 21%) 중 가장 낮은 수준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또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추가 담보 설정했다. 사업 완료 후엔 전문기관의 정산을 거쳐 제안사가 당초 제안한 수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수익을 공익사업 등에 재투자 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도 체결했다.

이 같은 개발방식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거버넌스 자문과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설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 및 협약체결 등에 따른 물리적 기간 촉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사업시행자측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토록 해 시간을 단축하는 등 치밀한 사업 추진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법령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목식재 및 파고라 등 공원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윤섭 시장은 "축박한 일정과 한정된 재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성원에 힘 입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했다"면서 "도시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의 도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섭 기자 lucky@kwangju.co.kr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 해안초소 18일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해안 초소 철책 부근에서 북한군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도훈 전격 방미...한미 대응공조 박차

### 비전 만나 한반도 상황·대응 방안 논의... 북 추가 도발 제재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예고와 대화 거부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자 정부가 미국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한미 양측은 약화일로로 치닫는 한반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외교부는 "이도훈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비전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미 양측은 약화일로로 치닫는 한반도 상황을 막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본부장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비전

부장관을 만나 북한의 대남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대남 군사도발 예고로 대결 구도로 치닫는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방미의 초점은 상황 악화 방지"라고 말했다. 수석대표 협의는 워싱턴D.C.에서 이뤄지며, 외교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협의의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대면 협의는 지난 1월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4월 2일에는 유선으로 이뤄졌다. 이후 이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자 방미를 검토해왔지만, 미 국무부가 인종차별 혐의 시위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시기를 저울질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의 관측처럼 특사 자격의 방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수석대표 협의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강경한 메시지를 북한을 더 자극하기보다는 안정적 인 상황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만나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 의지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 '완도 백련암 천수관음보살도' 등 3건 문화재 지정

전남도는 18일 '완도 백련암 천수관음보살도' 등 3건을 유형문화재로, '나주 송재사 나세찬 유목 목판'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완도 백련암 천수관음보살도(유형문화재 제339호)는 소수만 전해지는 희귀한 불화로 화기와 복장이 잘 남아 조성연대(1865년)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조성경위 등 19세기 불교사와 천수관음신앙 연구의 중요 자료다. 19세기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기연(錫衍) 등 5명의 화승이 참여했고, 도상에 충실한 화면 구성과 백색 선묘의 유려한 필선이 돋보인다.

영광 불갑사 명부전 목조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유형문화재 제340호)은 17세기 대표적인 조각승 무연(無染) 등 17명이 참여해 조성한 존상으로 연대(1654년)가 확실하고, 조선 후기 전반기 양식을 잘 나타낸 우수한 조각 작품으로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복장 전적이 보물 제1470-2호로 이미 지정돼 존상 역시 국가 지정문화재 승격 지정을 추진할 가치가 있다.

영광 불갑사 목조 석가여래삼존상과 나한상 일괄(유형문화재 제341호)은 18세

기 초 조각승 초변(楚彦) 등 10명이 조성한 존상으로 연대(1706년)가 확실하고, 생동감 있는 상호 표현 등 조각수법이 뛰어나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크다. 제작연도, 조성장소, 시주자 등을 기록한 발원문은 불사 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자료이며, 복장 전적도 보물 제1470-1호로 이미 지정된 바 있다.

나주 송재사 나세찬 유목 목판(문화재자료 제291호)은 조선 전기 학자 나세찬(1498-1551)의 유목(遺墨,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지닌 1927년에 새긴 목판으로, 생동하는 기운과 비범한 기개, 자유분방한 필치가 돋보인 서예사의 중요 자료다. 해서체와 행서체, 초서체 등 특정 서체로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쓴 유목 목판과의 비교 연구 자료로도 높게 평가된다.

이밖에 문익점 부조묘 관련 문서 일괄(유형문화재 제110호)은 '보성 문익점 부조묘와 고문서'로 변경 지정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글씨나 그림)을 지닌 1927년에 새긴 목판으로, 생동하는 기운과 비범한 기개, 자유분방한 필치가 돋보인 서예사의 중요 자료다. 해서체와 행서체, 초서체 등 특정 서체로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쓴 유목 목판과의 비교 연구 자료로도 높게 평가된다.

이밖에 문익점 부조묘 관련 문서 일괄(유형문화재 제110호)은 '보성 문익점 부조묘와 고문서'로 변경 지정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홍사덕 전 국회의장 별세

홍사덕(사진) 전 국회의장이 17일 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고인은 1981년 제11대 민주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8대까지 6선을 했다. 199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에서 김대중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정부 제1 장관을 역임했다.

고인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명실공

히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으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9월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전격 탈당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을 밟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20일로 예정하고 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임경미 여사와 1남 2녀가 있다.

/연합뉴스



# 北매체 "상상 뛰어넘을 추가조치 있을 것"... 청와대 비판엔 침묵

### 노동신문 정세론 해설

북한 매체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이틀 만에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날 청와대의 이례적인 비판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연락사무소 폭파) 첫 시기에 불과하다"며 "연속 터져 나올 정의 폭음은 사대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군대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군 대 전계,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남측에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돌리며 대남비난도 이어갔다.

신문은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표현하며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누구인데 저들이 빚어낸 사대의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오만불손하게 놀아대-

나"고 반문했다. 이어 남측을 "비겁하고 나약하며 저열한" 상대로 매도하며 남북 관계를 더는 논할 수 없고, 남북간 접촉공간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오전에는 전날과 달리 주요 당국자들의 잇단 담화를 통한 수위 높은 대남 비난은 나오지 않았다.

전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김영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무례한 어조", "물상식한 행위"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침 반응을 내놓지 않은 셈이다.

남측이 '금 대 강' 대처로 치닫기 전에 북한이 숨 고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직통 전화 **062)513-4306**

##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6. 23(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6.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 침술경력50년

금침을 한번만 맞으면 노후한 몸속 기관이 살아나 활기가 넘치고 젊어집니다.

**고혈압, 당뇨병, 정력강화, 중풍마비, 각종 암, 불치불증**

단 한번의 치료로 모든 병을 고칩니다.

**010-8491-2060**

**공고**

광주가정병원 2020년도 3066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 청구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이순희(1960.06.22생) 등속기증서: 광주 남구 용매로74번길 27(봉선동) 최후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용매로74번길 25의 1 사 망 일: 2019년 12월 25일

2.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재권 또는 수증은 2020년 8월 23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내에 재권 또는 수증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대로 48 308호(미래타워) 신고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대로 48 308호(미래타워) 문의처 061-371-4800

2020년 6월 19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 조대부고 총동창회 2020년 24차 회기 정기총회

**일시**  
2020. 6.25.(목) 18:30

**장소**  
스타워웨딩컨벤션 4층

- ☎ 062-372-1000
- 광주 서구 시청로 45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배옥례(311017-XXXXXX)
- 최후주소: 여수시 봉계대곡길 50, 104동 904호 (봉계동, 이주타운)
- 등속기증서: 전남 여수시 동산1길 2의 1 피상속인 망 배옥례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청구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년 8월 23일 신청하여 2020년 6월 1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재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재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6월 19일
- 상속인: 이경희(621111-XXXXXX) 여수시 대교로 72-1, 2층(봉산동)
- 신고기간: 2020. 6. 19. ~ 2020. 8. 28.
- 채권신고처: 상속인 이경희의 주소

## 산행안내

**6월20일(토)**

▲ 광주금강산악회 6월20일(토) 통일 천혜의비경 비전도 외산 선유봉, 봉선동롯데마트앞 06: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6:20, 영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앞 06:40, 문에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 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강산악회 ☎ 010 6294 2678

**6월24일(수)**

▲ 광주청록산악회 6월24일(수) 전북 임실 오봉산-국사봉 산행, 백운로터리어리어뱅크앞 07:30, 배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28일(일)**

▲ 광주자연보전연합회 6월28일(일) 장수 함양백운산(1277m), 영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연합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공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여항구독 220-0550